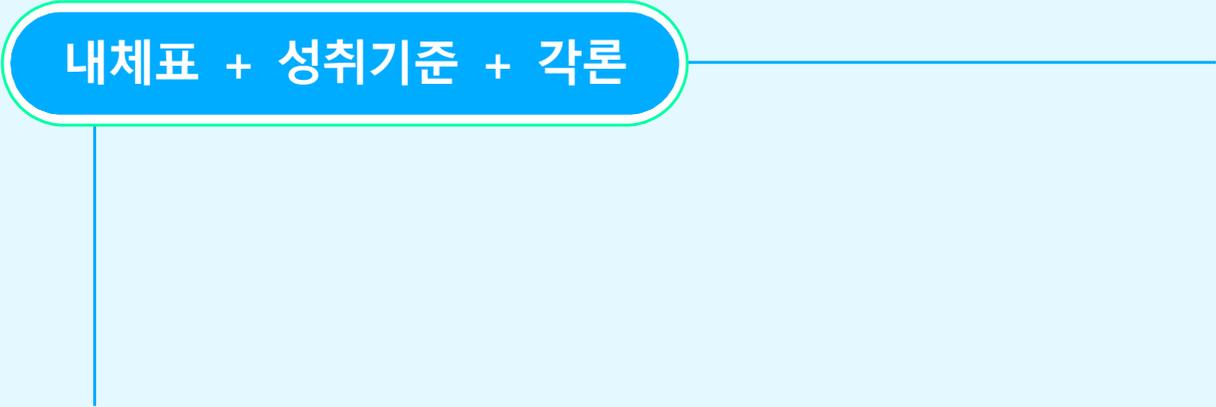


내체표 + 성취기준 + 각론





2022학년도 A - 1 문제

(가)

학생 2 : 저는 '밭다'의 [1] 「1」의 뜻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 내 동생은 여러 가지 색연필을 많이 받았다.

학생 1 : 저는 '멸종'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 전문가라도 동물의 멸종시기를 일일이 알아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2) (나)의 ㉠, ㉡으로 고쳐쓰기를 지도하려고 한다. ① ㉠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을 모두 쓰고, ② ㉡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2점]

2023학년도 A - 2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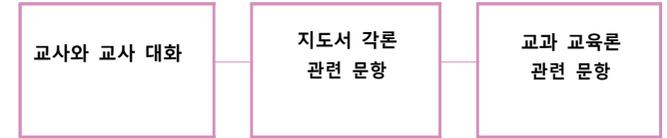
(가)

나는 누리집에 올릴 글을 쓰는 수업인 만큼, 글의 의미가 글 자체로 또는 필자의 인지 전략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래서 글을 읽을 독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두루 공유하고 있는 지식, 신념이나 가치 등을 반영하여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그리고 가시적인 실제 독자를 넘어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예상 독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글을 살펴보니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성과 그러한 글이 소통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글쓰기 수업에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장르 관습과 글쓰기 규범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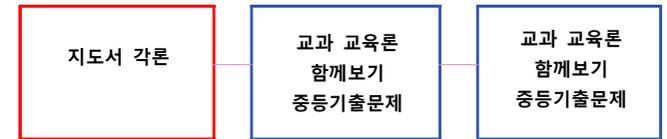
1) [A]에서 교사가 수업의 전제로 삼고 있는 쓰기 이론에 근거하여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점]

기출 문제 출제 방식 ▶ 교재구성

기출 문제 출제 방식



교재 구성 [P. 37 -38 참고]



【정답: 출처 - 2022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각론 / 교과교육론】

서술어의 자릿수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에 사용된 ‘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가지를 요구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이와 -히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반복되거나,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ㅅ’으로 끝나거나,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의 ‘ㅂ’이 없어지는 경우, 낱말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이’를 사용한다.	틈틈이, 줄줄이 겹겹이, 깨끗이, 빠듯이, 따듯이, 오뎅이, 그윽이, 많이, 같이, 높이, 일일이
---	--

【정답: 출처 - 교과교육론 / 중등기출문제】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쓰기란 **답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 듣기·말하기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말하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li> <li>·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li> <li>·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li> <li>· 화자와 청자는 듣기·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li> </ul>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 유형	· 대화 · 발표	· 대화 · 발표 · 토의	· 대화 · 면담 · 발표 · 토의 · 토론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 중요한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 내용 요약하기 ·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 내용 예측하기	·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 주장, 이유,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 목적과 주제 고려하기 · 자료 정리하기 · 원인과 결과 구조에 따라 조직하기 · 주제에 적절한 의견과 이유 제시하기 ·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 청자와 매체 고려하기 · 자료 선별하기 · 핵심 정보 중심으로 내용 구성하기 · 주장, 이유, 근거로 내용 구성하기 · 매체 활용하여 전달하기
	상호 작용	· 말차례 지키기 · 감정 나누기	· 상황과 상대의 입장 이해하기 ·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기 · 의견 교환하기	· 궁금한 내용 질문하기 · 절차와 규칙 준수하기 · 협력적으로 참여하기 · 의견 비교하기 및 조정하기
	점검과 조정			· 듣기·말하기 과정과 전략에 대해 점검·조정하기
가치·태도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 듣기·말하기 효능감	· 듣기·말하기에 적극적 참여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듣기·말하기의 다양한 목적과 맥락을 반영하여 구어 의사소통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구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듣기·말하기의 전략을 점검·조정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상대와 상호 작용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듣기와 말하기를 분리하지 않고 상호 통합하여 지도하여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국어과의 타 영역 성취기준, 타 교과 성취기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참고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연계하여 담화의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구어 의사소통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등 담화 유형별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담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모두 평가하기보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학년군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구어 의사소통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담화 맥락을 조성하여 평가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습자 특성이나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녹화 기록법, 관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태도를 평가할 때는 일상의 구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성실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점검표나 성찰 일지를 활용하여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평가한다.

2015개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락 이해·활용하기</li> <li>· 청자 분석하기</li> <li>· 내용 생성하기</li> <li>· 내용 조직하기</li> <li>· 자료·매체 활용하기</li> <li>· 표현·전달하기</li> <li>· 내용 확인하기</li> <li>· 추론하기</li> <li>· 평가·감상하기</li> <li>· 경청·공감하기</li> <li>· 상호 교섭하기</li> <li>· 점검·조정하기</li> </ul>

- 2015개정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① 상호 교섭성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화 상황 안에서 참여자가 함께 교섭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의미는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고 듣기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에 의해 **상호 교섭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준비된 말하기'라고 해서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안된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이것 역시 **청중과 함께 의미를 공유해 가는 상호 교섭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청중을 보면서 준비한 내용을 기억하여 말하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화법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준비된 말하기'를 할 때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과 구체적 담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실제 청중들 앞에서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해 보게 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도록 한다.

**상호교섭적 성격**이란 화법엔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② 순서 교대의 의미와 유의점

대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 실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기회에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 결과물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 모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진행 방향과 순서 교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화 참여자는 적절한 말차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현재의 화자는 말차례 중간에는 자신의 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고, 말차례가 끝났을 경우에는 **비언어적 신호나 언어적 신호**를 다른 참여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대화 진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은 말차례의 순서를 배당하는 발화를 하여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순서 교대 적정 시점(일반적으로 문장이 끝나는 지점, 즉 문장 종결 어미)에서는 대화의 주제나 대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서 선택의 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핵심 아이디어

- 듣기·말하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
- 화자와 청자는 듣기·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담화 유형	• 대화 • 발표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상호 작용	• 말차례 지키기 • 감정 나누기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2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서를 교대**하며 구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기,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거나, 고갯짓, 시선, 억양 등의 말차례 교환 신호를 활용하여 다음 사람이 말차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말차례 교환 신호를 확인하여 자신의 말차례 지키기 등을 학습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구어 의사소통에는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적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 발표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넘어 (㉠)을/를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

㉠ 상호교섭

⑥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 집중하기

청자의 듣는 태도는 화자에게 수많은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청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등은 그 자체로 화자에게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청자의 반응은 얼굴표정, 고개 끄덕임, 침묵 등의 **비언어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질문하기**와 같은 적극적인 언어 표현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듣기 또한 표현 행위라 할 수 있다.

- **음소, 낱말, 어구, 문장** - 언어적 요소
- **억양, 강세, 속도** - 준언어적 요소
- **얼굴 표정, 시선, 몸짓** - 비언어적 요소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 ❶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 말을 할 때에는 말의 주도권에 해당하는 말차레가 있다. 말차레는 **먼저 말한 사람**에게 있고, 이를 가져가려면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다 말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 대화를 할 때에는 **말차레와 함께 대화 내용, 듣기 태도**도 생각해야 함을 알도록 한다.

- ❷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 표정이나 몸짓은 말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거나 완성한다.**
  - 머리를 고덕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 등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청자가 화자에게 동의하거나 계속 말 듣기를 원한다는 **격려**의 뜻을 전달하는 등 여러 종류의 피드백을 수행한다.
  - 이렇듯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초가 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만큼이나 **표정, 몸짓, 자세, 어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 상대에게 고마움이나 반가움을 전하고 슬픔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인사말 자체라기보다 비언어적 표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❸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 고개를 들고 말한다.
  -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본다.
  - 표정은 밝게 웃는다.
  - 배에 가볍게 힘을 준다.
  - 손은 편안하게 내리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허리는 곧게 세운다.
  - 발은 자연스럽게 벌리고 선다.
  -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 ❹ 듣기 자세 점검표(교사 읽기 자료)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었나요?
  -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나요?
  -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앉았나요?
  - 손은 허벅지나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나요?
  - 다리를 가지런히 했나요?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담화 유형	· 대화 · 발표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상호 작용	· 말차레 지키기 · 감정 나누기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2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 교섭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순서를 교대**하며 구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기,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거나, 고갯짓, 시선, 억양 등의 **말차레 교환 신호**를 활용하여 다음 사람이 말차레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말차레 교환 신호를 확인하여 자신의 말차레 지키기 등을 학습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 ❶ 바른 발표 자세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한다.
  -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 바른 자세**로 말한다
- ❷ 발표할 때 주의할 점 확인하기
-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신 있고 분명하게 끝까지 말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발표가 끝나면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하여 친구가 생성한 소개할 내용을 보충하게 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
- ❸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말하기
- ‘아침’, ‘저녁’, ‘오후’, ‘7시’** 등과 같은 **시간 표현은 일이 일어난 순서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간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❹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
-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장에서 어휘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은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한 어휘이다. 또, ‘초’, ‘분’, ‘시간’, ‘날’, ‘해’ 등과 같이 시간의 길이를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 둘째는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장 내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어미를 통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초등문제 함께보기]

면담 시 지켜야 할 대화 예절을 안내하여 면담의 전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 가령 [A]처럼 대화에서 ( )의 기본 규칙을 여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등 ( )을/를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고 바른 태도로 대화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다.

말차레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①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대화 지도에 대한 학습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대화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 녹화 기록법

교사와 학생의 관찰도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의 수행 과정을 비디오키메라로 녹화해 두었다가 교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생하여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배려하는 말 하기

대화의 원칙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하기'이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기분이 어떨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배려하는 말 하기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듣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과는 구별된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초등문제 함께보기]

1. 다음은 위 수업을 위해 최 교사가 계획한 지도 내용이다. A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인사말 하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말의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업 자료가 ( A ) 상황에서의 인사말임을 알도록 하고, 인사말 하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야겠다.

공식적

2. ㉠과 ㉡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 두 반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진희: 오늘 급식이 참 맛이 있었어.  
 민영: ㉠(고개를 끄덕인다.)  
 진희: 나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이 있었어.  
 준수: ㉡(나도 그래.)

공통점 : 맞장구치기 전략

차이점 : ㉠은 비언어적 표현이고, ㉡은 언어적 표현이다.

2022 개정 1~2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1~2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담화 유형	· 대화 · 발표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집중하기 ·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 파악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기 ·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상호 작용	· 말차례 지키기 · 감정 나누기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		· 듣기·말하기에 대한 흥미

[2국01-02] 이 성취기준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 다양한 감정과 관련된 표현 말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등을 학습한다.

[2국01-04] 이 성취기준은 교실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른 자세로 표현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간단히 말하기,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말하기,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하기,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기, 적절한 크기의 소리로 말하기 등을 학습한다.

[2국01-05] 이 성취기준은 삶에서 듣기·말하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듣기·말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의사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임을 인식하기, 듣기·말하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경험해 보기, 다양한 놀이를 통해 듣기·말하기에 흥미 가지기 등을 학습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⑥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

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④ 공감적 화법의 개념

공감적 화법은 대화 상대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의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그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화법이다. 또 공감적 화법은 정서적 공감 및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언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적 화법이다

⑥ 공감을 키우는 대화

① 관심 갖고 질문하기

A: 형, 이거 봐! 나, 이 빠졌다.  
 B: 와, 흔들리던 이가 빠져서 엄청 시원하겠네. 어쩌다 빠졌는데?

② 적절히 맞장구치기

A: 너무 급해서 막 뛰어 들어갔더니, 글세 남자 화장실이지 뭐야.  
 B: 어머머, 웬일이니! 진짜 창피했겠다.

- 맞장구치는 방법에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짧게 드러내는 방법, 공감하며 호응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친구들과 맞장구치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할 때는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⑥ 공감적 의사소통의 특성

- 객관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한다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이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3~4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❶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하기

- 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한다.
- ②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한다.
- ③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한다.

❷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

- ① 듣는 사람에 따라 말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생각하여 본다.
- ② 듣는 사람에게 말할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
- ③ 준비한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맞게 말해 본다.
- ④ 듣는 사람과 듣는 상황을 고려하였는지, 내용을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본다.

2022 개정 3~4학년 내용체계표 +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3~4학년
지식·이해	듣기·말하기 맥락	· 상황 맥락
	담화 유형	· 대화 · 발표 · 토의
과정·기능	내용 확인·추론·평가	· 중요한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 내용 요약하기 ·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 내용 예측하기
	내용 생성·조직·표현과 전달	· 목적과 주제 고려하기 · 자료 정리하기 · 원인과 결과 구조에 따라 조직하기 · 주제에 적절한 의견과 이유 제시하기 ·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상호 작용	· 상황과 상대의 입장 이해하기 ·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기 · 의견 교환하기
	점검과 조정	· 듣기·말하기 과정과 전략에 대해 점검·조정하기
가치·태도		듣기·말하기 효능감

[4국01-03] 이 성취기준은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역양, 어조, 속도 등의 준언어적 표현**과 **표정, 시선, 몸동작,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이해하기,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파악하기,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의 적절한 점검하기, 상황에 적절한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등을 학습한다.

[4국01-05] 이 성취기준은 교과 학습 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발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어진 자료에서 **발표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 정리하기, 준비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점검하며 발표 연습하기,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며 발표 연습하기, 연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정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기 등을 학습한다.

[4국01-06] 이 성취기준은 문제를 함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으로서 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제에 적절한 의견**을 이유와 함께 제시하기, 상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의견과 이유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로 묻고 답하기, 다른 사람의 생각 존중하기 등을 학습한다.

3~4학년 듣기·말하기 지도서 각론 함께보기

❸ 회의 절차와 참여자 역할

회의 절차	개회	회의 시작을 알린다.
	주제 선정	회의 주제를 정한다.
	주제 토의	선정한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제시한다.
	표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헤아려 다수결로 결정한다.
	결과 발표	결정한 의견을 발표한다.
	폐회	회의 마감을 알린다.
참여 자 역할	사회자	· 회의 절차를 안내한다. · 말할 기회를 골고루 준다.
	회의 참여자	· 의견을 발표한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다.
	기록자	· 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한다. ·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❹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 말하기

- 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본다.
- ② 친구들에게 말할 경험을 정해서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정리해 본다.
- ③ 경험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본다.
- ④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
- ⑤ 친구들이 경험한 일을 듣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정리해 본다.
- ⑥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글로 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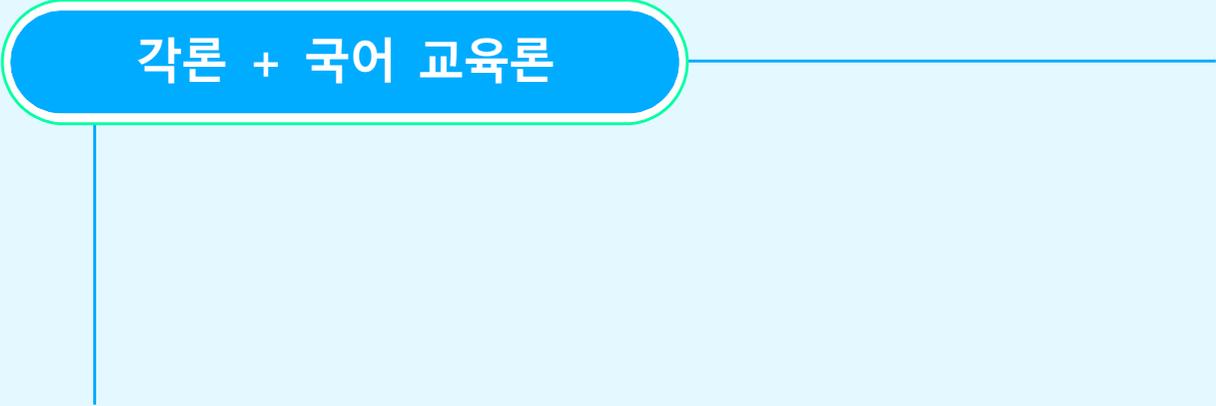
❺ 내용을 간추리며 듣기

- ① 메모할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쓴다.
- ② 메모할 때에는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쓴다.

❻ 들은 내용 간추리기

- ① 듣는 목적을 생각하고,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리고,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들어 본다.
- ② 들으면서 중요한 낱말이나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짧게 써 본다.
- ③ 자료를 듣고 난 뒤에 들은 내용을 **나뭇가지 모양, 도형, 수직선** 등을 활용하여 정리해 본다.

각론 + 국어 교육론



지도서 각론 - 대화

● 대화의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즉, **상대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활동을 할 때 크게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크게 말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말해줄래?"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려와 존중의 언어는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 국어 교육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 고려할 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지도할 때에는 여러 사진 자료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소개하거나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흥미로운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 가운데 부정적인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 점검**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글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타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위 인지를 길러 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말투나 행동 가운데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표 방식이나 짝 활동과 같은 상호 점검 활동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

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 공감적 화법의 개념

공감적 화법은 정서적 공감 및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언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적 화법**이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 대화의 원리 -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지켜야 할 원칙

공손성의 원리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li> <li>·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li> <li>·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li> <li>·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li> <li>·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요령의 격률:</b>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소화</li> <li>㉡ <b>관용의 격률:</b> 자신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대화</li> <li>㉢ <b>칭찬의 격률:</b> 듣는 이에 대한 칭찬은 극대화</li> <li>㉣ <b>겸양의 격률:</b> 말하는 이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li> <li>㉤ <b>동의를 격률:</b>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킴.</li> </ul>
협력의 원리	<p>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li> <li>·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li> <li>·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li> <li>·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li> </ul>
순서 교대의 원리	<p>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li> <li>· 상대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차례를 빼앗지 않는다.</li> <li>·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지 않는다.</li> <li>·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li> </ul>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 공손성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

**공손성의 원리는 음성언어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표현과 태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참여자들은 언제나 협력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 A: 문 좀 닫아.
- B: 바람 들어온다.
- C: 문 좀 닫아줄래?
- D: 문 좀 닫아 주겠니?

화자는 상대방에게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위의 예에서처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협력 원리에 따른다면 "문 좀 닫아."라는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형보다는 B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이나 C나 D같은 공손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자기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공손성 원리란 한 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리치(Leech)가 제안한 정중어법은 한 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리치는 이 정중어법을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1.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김 교사는 국어 시간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최근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속상했던 상황과 그때 오갔던 말'을 적어 보게 한 후 이를 짝과 함께 역할극으로 재연해 보게 하였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학생 A :** 이번 달에 모둠 발표 과제가 3개나 있어. 나는 모둠으로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싫어. 모둠 구성원들과 서로 시간 맞춰야 하지, 의견이 다르면 계속 토의해야 하지, 같이 모여서 발표문 써야 하지, 시간이 많이 들고...

**학생 B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지.

**학생 A :**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

**학생 B :**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깐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학생 A :** 그렇지만 말은 부분을 잘 안 해 오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모둠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뭉까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어. 차라리 과제를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

**학생 B :** ㉠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끝도 없잖아. 모둠 과제니까 좀 손해 본다 싶더라도 참고 해야지.**

**학생 A :** 누가 모르니? 그만하자. 너랑 이야기하니까 나만 못난이 같아 더 화가 난다.

(나)

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크게 소극적 들어주기과 적극적 들어주기로 구분한다. 공감적 듣기는 참여자 간에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작성 방법>

-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기의 맥락으로 볼 때, ㉠의 문제점을 ㉡의 관점에서 1가지 서술할 것
- 학생 B에게 필요한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의 표현을 수정할 것

[모범답안]

- **판단(분석, 비판)부터 하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 **학생B에게는 반영하기 방법이 필요하며, '친구들 뭉까지 하다보니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로 수정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의 범주

- **개방성 :** 상대의 생각에 대한 열린 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 **상대에 대한 배려 :** 상대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 :** 욕설이나 험담 같은 부정적 표현 자제하기
-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 :** 상대의 입장 및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기
- **적극적 경청 :** 화자의 말에 관심 갖기
- **진실성 :** 정직하게 말하기
- **표절에 대한 경계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출처 밝히기
- **공정성 :** 편견 최소화
- 기타 : 언행일치, 일관성, 성실성, 공손한 태도, 통신언어 윤리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2. 다음은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 2가지를 [A]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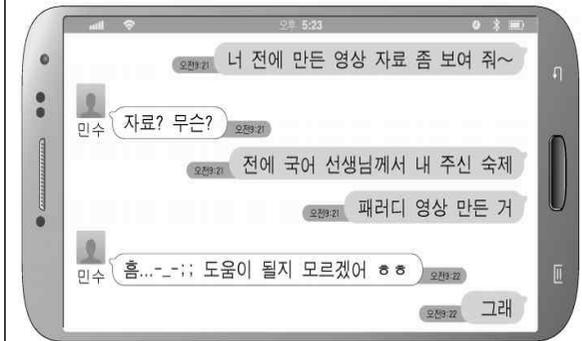
**도연 :** 너 어제는 내가 부탁한 영상 자료를 보여 준다더니 왜 안 된다 는 거야?

**민수 :** 내가 언제 너한테 보여 준다고 말했어?

**도연 :** 나랑 어제 온라인 대화할 때 보여 준다고 했잖아.

**민수 :** 언제 그랬어? 보여 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연 :** 참 나, 어제 네가 보낸 거 확인시켜 줄까?



[A]

**도연 :** 자, 봐. 이게 보여 주겠다는 뜻 아냐?

**민수 :** 아니, 그건 자료를 주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낸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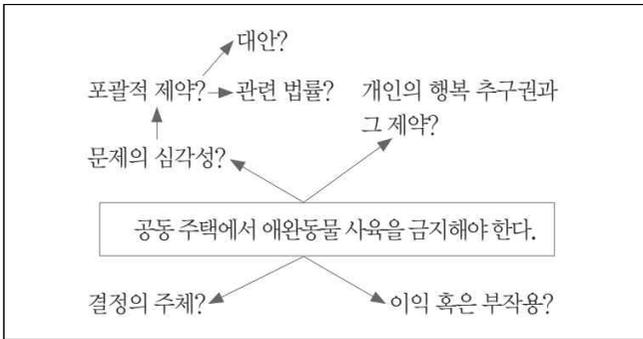
[모범답안]

**온라인 대화는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한계가 있다. 민수는 '-\_-;;'를 활용하여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였기에 갈등이 발생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도연은 민수의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5-2-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 디베이트 주제 생각그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상대편을 설득함. 또는 그런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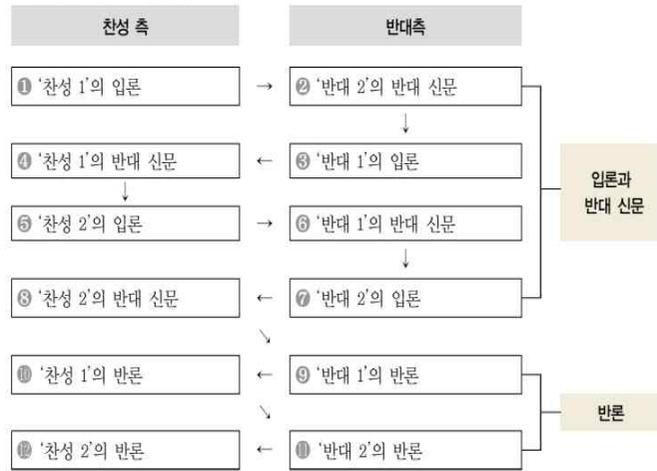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공동 주택'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모두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질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찬성편에서는 '공동 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반대편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 행사'를 중심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① CEDA토론 진행순서

어떤 논제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 고전식 토론의 **입론 단계에 바로 앞 상대 토론자를 향한 반대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 방식**.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입론, 교차조사, 반론. 3가지 종류의 발언 시간이 팀별로 2회씩 주어진다. 찬성측의 입론으로 시작하고, 각 입론이 끝날 때마다 교차조사가 진행된다. **반론은 반대측이 먼저 시작하여 찬성측의 반론으로 끝이 난다.**



찬성 측1 입론 → 반대 측2 질문 → 반대 측1 입론 → 찬성 측1 질문 → 찬성 측2 입론 → 반대 측1 질문 → 반대 측2 입론 → 찬성 측2 질문 → 반대 측1 반박 → 찬성 측1 반박 → 반대 측2 반박 → 찬성 측2 반박

② 토론 입증 책임

[토론 입증 책임]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정책 논제 -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주장을 담아 진술  
찬성측은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현재 상태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이익/비용 등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③ CEDA 토론에서의 입증 책임

**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온전히 찬성 측에 있다.** 찬성 측은 첫 번째 입론에서 선결 요건 원칙에 의거하여 필수 쟁점을 다룬 완벽한 주장을 해야 한다. 이때 찬성 측에게는 사안의 문제를 살피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중등문제 함께보기]

**학생:** 반대 신문식 토론의 경우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시작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을 하다가, 협의 시간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어 찬성 측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사:** 아, 그것은 주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 때문입니다.

입증부담의 책임이 있기

독서는 독자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미 구성의 주체는 개별 독자로 전제되는데, 이는 독서가 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협동 학습의 원리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독자 지도 방법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 등이 있는데, 이 독자 지도 방법들은 독자들 간 의미 경쟁을 통해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미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생각을 얻거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하여 개별 독자의 독서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소통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글의 의미는 (㉢)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독자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소통된다. 이로써 독자는 개인 차원의 독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로서의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 독서토론 ㉡ 사회적

■ 2022개정 읽기

핵심 아이 디어	·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b>사회적 독서 문화</b> 를 만들어 간다.
----------------	--

지도서 각론 - 낭독[朗讀, reading aloud]

● **낭독**  
 글을 읽고 이해한 후에 글에 담겨 있는 감정과 정서를 담아 소리 내어 읽는 아름다운 음독(音讀)을 말한다. 효과적으로 낭독하려면 우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 음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즉,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음운 규칙을 지키며, 글의 성격이나 장면, 분위기 등에 어울리는 어조로 읽고 적절한 속도로 읽으며, 띄어 읽어야 할 곳과 쉬어 읽어야 할 곳을 알고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낭독은 묵독(默讀)보다 더 어려운 읽기 방법이므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낭독은 문학 작품이나 연극의 대사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읽기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  
 낭독은 문자를 처음 소리 내어 읽는 음독과는 다르다. 음독은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음성으로 바꾸고, 그것을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읽기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교사는 음독을 통해 학습자가 글을 해독할 수 있는지,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낭독은 이러한 음독과는 달리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면서 정서와 감정을 포함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리 내어 읽기 방법이므로 글의 의미 이해 이외에 정서적 감상까지 평가해야 한다. 낭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가 읽는 것을 보여 주거나, 따라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소리 내어 읽기, 조그만 소리로 읽기 등의 단계를 거친다.

- \* 음독: 문자 언어를 음성화의 재기호화 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 구성을 하는 과정
- \* 묵독: 음성 언어의 재기호화 과정, 즉 음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 \* 낭독: 문자의 해독과 해독한 의미를 다시 음성 언어화 하는 과정.

-----[영어교육론 함께보기]

What is reader's theater? It's a way to involve students in reading aloud. In reader's theater, students "perform" by reading scripts created from grade-level books or stories. Usually they do so without costumes or props. Reader's theater is a strategy that combines reading practice and performing

**[해석]**  
 낭독극이란 무엇인가요? 낭독 연극은 학생들이 소리 내어 읽는 데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낭독 연극에서 학생들은 학년 수준의 책이나 이야기로 만든 대본을 읽으며 '공연'을 합니다. 보통 의상이나 소품 없이 연기합니다. 낭독극은 읽기 연습과 공연을 결합한 전략입니다

지도서 각론 - 동화 구연

● **동화 구연의 방법**  
 동화 구연은 동화교육의 실질적인 지도 방법으로 그 활용도가 높다. 흔히 구연은 입말을 통해 소리와 표현을 연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소리와 표현의 연기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구연자가 음성언어, 표정, 몸동작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소리의 연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성언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목소리의 기교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의 목소리나 등장인물들의 말을 빠르기, 어조, 음색 등을 달리해 읽을 수 있다. **표정과 몸동작의 연기는 이야기의 구연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연자의 눈빛, 입 모양, 표정과 고개, 머리, 어깨, 팔 등의 동작 연기를 말한다.**

연기라 해도 구연에서의 연기는 직업 연기자의 그것과 달리 구연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정과 몸동작이다. 동화는 그 자체로 소리와 표정 및 몸동작의 연기를 동반한다. 이야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리와 눈빛과 표정의 표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보다 실감 나게 표현될 때 구연의 효과가 높아진다.

-----[영어교육론 함께보기]

Readers Theatre is a performance of a written script that demands repeated readings. Performing the script provides students with a real purpose for the repetition, and they are able to read it faster with confidence. Because they read from the script during the performance, they are encouraged to read it with appropriate speed and expression to carry the meaning effectively. Therefore, Readers Theatre is an effective and engaging way to develop fluency in reading.

**[해석]**  
 낭독극이란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대본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대본을 공연하면 학생들은 반복에 대한 실제 목적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공연 중에 대본을 읽기 때문에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속도와 표현으로 대본을 읽도록 권장됩니다. 따라서 낭독극은 유창한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① **읽기 유창성**  
 ■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  
 1) 적절한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표현능력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2) 유창성은 "해독"과 "이해"를 동시에 하는 능력  
 유창성의 정의에서 "표현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표현능력"이라는 것은 "의미 단위 끊어 읽기와 고/저/장/단/강/약/완/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고/저/장/단/강/약/완/급을 주며 리듬감 있게 읽으려면 내용을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유창성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묵독보다 **"낭독: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표현력을 가지고 읽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읽기 유창성은 정확도, 속도, 운율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읽기 유창성이 부족한 학생은 글을 읽을 때 개별 단어를 해독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읽기 이해에 사용할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여 전체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유창한 독자는 글을 이해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및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읽기 유창성 교수 방법 및 활동의 예

- 학생에게 동일한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 학생이 동일한 글을 세 번 이상 소리 내어 반복하여 읽도록 한다.
- 글을 유창하게 읽는 사람(교사나 또래)이 유창하게 읽는 것을 시범 보인 다음, 학생에게 같은 글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 학생이 글을 읽을 때 오류를 보이면 체계적인 오류 교정 절차를 적용하여 오류를 교정한다.
-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의미가 통하는 구나 절 단위로 끊은 다음, 끊기는 부분이 표시된 읽기 지문을 사용하여, 적절한 곳에서 끊어 읽으면서 유창하게 읽는 것을 시범 보인다.
- 학생 두 명이 짝을 구성하여 번갈아 가며 끊어서 반복 읽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읽기 유창성 교수를 실시한다.
- 학생이 글에 포함된 단어의 약 90 % 이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유창성 교수에 사용한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② 오독 분석법(reding miscue analysis)

학생에게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그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오독 분석법은 독서 발달 단계 중 입문기나 기초 기능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독서 평가에 적용할 만한 것으로, 학생들이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독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그 학생이 읽기에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오독 평가지

무반응	삽입	생략	무의미대치	의미대치	자기점검	기타	종합의견

③ 음독 오류의 일반적 분류

- ① 무반응 오류: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서 읽기를 멈추어 발음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
- 기대 반응: 인수가 먼저 절을 하였습니다.
  - 관찰 반응: 인수가 절을 하였습니다.
- ② 삽입 오류: 원래 문장에 없는 낱말을 임의로 추가하여 읽은 경우
- 기대 반응: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 관찰 반응: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갑니다.
- ③ 생략 오류: 문장에서 한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
- 기대 반응: 작은 해바라기를 칭칭 감고 올라갔습니다.
  - 관찰 반응: 작은 해바라기를 ( ) 감고 올라갔습니다.
- ④ 대치 오류: 문장에 있는 낱말이 아닌 다른 낱말로 대치하여 읽는 경우
- \* 무의미 대치 오류
- 기대 반응: 모두 덩달아 야단들이었습니다.
  - 관찰 반응: 모두 덩달라 야단들이었습니다.
- \* 의미 대치 오류
- 기대 반응: 그날 밤에는 바람이 세계 불었습니다.
  - 관찰 반응: 그날 밤에는 밤이 세계 불었습니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 ⑤ 자기 점검 오류: 처음의 반응을 후에 다른 정보에 비추어 수정하는 경우
- 기대 반응: 말 위에 올랐습니다.
  - 관찰 반응: 말 위에 올라랐습니다. (1차 반응)  
말 위에 올랐습니다. (2차 반응)
- ⑦ 반복: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읽는 경우
- 기대 반응: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약한 것도 있군!
  - 관찰 반응: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약한 것도 있군!
- ⑧ 반전: 단어 순서나 음절 순서를 바꾸어 읽는 경우
- 기대 반응: 작은 해바라기는 기뻐했습니다.
  - 관찰 반응: 작은 해라바기는 기뻐했습니다.

[초특문제 함께보기]

1. 다음은 (나)의 ㉠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2점]

(나) 대화 내용

김 교사: 다음 주 국어 시간에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읽기 영역 중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박 교사: 네, 읽기 유창성은 성호뿐만 아니라 저학년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김 교사: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성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박 교사: 네, 저는 반복읽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사: 그렇다면 ㉠학급에서 반복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중략) ...

- ㉠ 유창하게 글을 읽는 시범을 제공한다.
- ㉡ 주로 학생 혼자서 반복하여 읽게 한다.
- ㉢ 음독보다는 묵독 읽기 연습을 충분히 제공한다.
- ㉣ 학생들에게는 교수 수준에 적합한 지문을 사용한다.
- ㉤ 체계적인 오류 교정 절차를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 ㉠ 학생 두 명이 짝을 구성하여 번갈아 가며 끊어서 반복 읽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 ㉡ 학생이 동일한 글을 세 번 이상 소리 내어 반복하여 읽도록 한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1. (가)의 ㉠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쓰시오.

영역	평가 방법	결과 요약
독서 기능	㉠	·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음
	독해 질문	·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 함. ·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에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함.
독서 태도	수업 관찰	· 교실 전체 수업에서 조용한 편임. · 독서 토의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글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함.
	비형식적 상담	· 독서 모임에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함.
	자기 평가	· 전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임. · 특히 책에 30분 이상 집중하거나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반응함.

㉠ 오독분석

2022개정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구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상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등 담화 유형별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담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모두 평가하기보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학년군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구어 의사소통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 맥락을 조성하여 평가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습자 특성이나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녹화 기록법, 관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태도를 평가할 때는 일상의 구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성찰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점검표나 성찰 일지**를 활용하여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평가한다.

‘읽기’ 영역에서는 교과서의 제재뿐 아니라 교과서 밖의 적절한 제재도 활용하여 실제적인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 다양한 독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읽기 영역의 단독 평가뿐만 아니라, 타 영역과 통합한 평가를 실시하되, 읽기 평가 요소를 명시하여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기초 수준에 있는 학습자나 느린 학습자 등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읽기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해독, 유창성, 독해 기능**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유 회상 검사, 오독 분석, 빈칸 메우기법, 자율적 수정, 중요도 평정, 요약하기**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읽기 태도나 습관 등을 평가할 때는 일회적 평가보다 누적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습자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쓰기’ 영역에서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능력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쓰기 태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기초 수준에 있는 학습자나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맞춤법 등의 형식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했느냐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학습자가 작성한 한 편의 글을 평가할 때는 내용, 조직,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경우에 따라 특정한 평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도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태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을 평가할 때는 일회적 평가보다 누적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쓰기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구성한다. 학습자의 쓰기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할 때는 **교사 평가 이외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평가자 자신의 글쓰기 과정과 그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학습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 중요도 평정법** - 일정한 글의 의미 단위를 대상으로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평가 방법이다. 읽기는 글 속의 수많은 정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주제나 목적에 비추어 각 정보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판정하는 과정이다.
- 프로토콜 분석법** - 읽기, 쓰기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언어 활동은 인지적 활동이며, 인지적 활동을 수행중인 학생에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작용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이런 방법을 사고 구술(think aloud)이라고 한다. 이때, 학생이 산출한 언어 자료를 프로토콜(protocol)이라고 한다. **학생이 산출한 프로토콜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읽기, 쓰기 정도, 사고 과정, 초인지 상태 등을 알 수 있다.**
- 일화 기록법** - 말하기와 듣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관찰하면서 교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기록하는 방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의 발표를 할 때 긴장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어,그,저 등을 많이 사용하며, 한 문장을 제대로 끝맺지 못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좋다.
- 관찰 기록법** - 관찰을 할 때에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합한 평가 항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설계한 다음, 누가기록을 만들어 평가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녹화 기록법** - 이 방법은 관찰 기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찰도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의 수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해 두었다가 교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생하여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담화 상황의 전모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과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빈칸 메우기 검사** - 글의 특정한 부분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공란을 채우게 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 때, 학생들은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문자를 추측하기 위하여 앞뒤 문맥을 살피고 자신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읽게 마련이다
- 오독 분석법** - 학생에게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그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그 학생이 읽기에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⑧ 분석적 평가(analytic scoring), 총체적 평가(holistic scoring), 주요 특질 평가(primary trait scoring)

분석적 평가	<p><b>분석적 평가</b>는 한 편의 글에 대해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나중에 종합하는 방식이다.</p> <p>분석적 평가는 총체적인 평가에 비해 객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분석적 평가에서는 학생의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총체적 평가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p>
총체적 평가	<p><b>총체적 평가</b>는 분석적 평가에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되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총체적 평가는 부분보다는 글의 전체를 평가할 수 있고, 분석적 평가에 비해서는 타당도가 높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분석적 평가를 할 때에도 글의 전체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총체적 평가를 할 때에는 분석적 평가를 할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p>
주요 특질 평가	<p><b>주요 특질 평가</b>는 특정한 한두 요소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특질 평가를 할 때에는 분석적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p> <p>주요 특질 평가는 분석적 평가나 총체적 평가에 비해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한정된 부분만을 평가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주요 특질 평가는 특정한 한두 요소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특질 평가를 할 때에는 분석적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주요 특질 평가의 장점은 교사가 기대한 교수·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특정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p> <p><b>예를 들어 '묘사하는 글쓰기' 과제라면, 핵심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는 '묘사의 능력'이다. 학생의 글이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나 구조화가 덜 되었더라도 묘사가 뛰어나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용이 좋고 문장력이 뛰어나더라도 묘사의 표현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b></p>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 ⑩ **포트폴리오(portfolios)** -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이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장기간에 걸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일회적으로 할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쓰기에 대한 태도나 흥미 등도 평가할 수 있다.
- ⑪ **자유적 수정** - 학습자가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 읽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지 하지 않고 계속 읽는지, 어느 지점에서 잘못을 인식하였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수정하였는지 등을 관찰하거나 기록하여 의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은 독해를 하고 있는지,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 ⑫ **자유회상** - 읽은 글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자유롭게 소개 하는 방법으로 읽기 능력을 분절하지 않고 한 편의 글을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읽기 능력 전체를 검사할 수 있다
- ⑬ **요약** - 자유 회상과 같이 머리 속에 표상된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인데,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간의 위계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강조하는 과제로서 글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국어 교육론 함께보기

[중등문제 함께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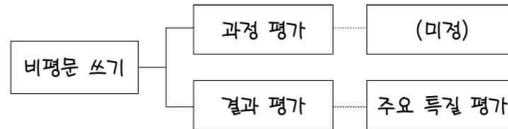
8. 다음은 비평문 쓰기 단원의 평가 계획에 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주요 특질 평가(주요 특성 평가)와 사고 구술평가의 장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김 교사 : 이 선생님, 제가 비평문 쓰기 단원을 가르치기 전에 평가 계획을 세웠는데, 검토해 주시겠어요?

이 교사 : 예, 그렇게요

[평가 계획]

- 평가 목표 :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 중점 :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두루 평가한다.
- 평가 방법



○ 평가 도구

· 쓰기 과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고 주장이나 견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비평문을 씁니다. 이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합니다.

· 평가 기준

1.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였는가?
2. 자신의 관점에 따른 주장이나 견해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3. 상대 관점의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였는가?

이 교사 : 비평문 쓰기 단원을 지도하면서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모두 활용하실 계획이네요.

김 교사 : 예, 그렇게 하려고요. 아직 과정 평가는 확정하지 못했고, 결과 평가로는 주요 특질 평가를 하려고 해요. 이전에 총체적 평가를 해 봤는데, 좀 더 ㉠과제 지향적인 평가를 해 보고 싶어서요.

이 교사 : 그렇군요. 그럼 과정 평가로 사고 구술을 활용하시는 건 어떤가요? 사고 구술은 평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학생들이 사고 구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 중점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김 교사 : 아, 그런가요? 사고 구술로 인지적 요소를 평가하는 건 알겠는데, 정의적 요소도 평가할 수 있나요?

이 교사 : 예, 그럼요. 제가 이따가 제 수업에서 수집한 ㉡정의적 요소가 드러나는 사고 구술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김 교사 : 아, 감사합니다. 과정 평가 방법으로 사고 구술을 추천하시니까 꼭 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평가도구는 어떤가요?

이 교사 : 주요 특질 평가에 사용할 평가 도구네요. 음, 쓰기 과제의 맥락을 좀 더 구체화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평가해야 할 주요 특질을 먼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또 쓰기 수행의 수준을 설명하는 평가 척도를 평가 기준에 설정해 놓으면 평가하기가 더 수월하지요

<작성 방법>

- 주요 특질 평가를 ㉢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되, 주요 특질 평가의 장점을 포함할 것.
- 과정 평가로서 사고 구술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고,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의 예를 제시할 것.

[모범답안]

- 주요 특질 평가는 교사가 기대한 교수·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특정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지향적인 평가이다.
- 사고 구술 평가는 쓰기 인지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의 예는 '난민 관련 주제는 너무 어려워,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글을 써야지.'이다.

■ 사고 구술 평가

- 글을 쓰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말하게 하며, 글을 완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
- 인지심리학을 토대로 한 연구 방법이자, 현시적 교수법에서 활용되는 지도 방법이며, 평가 방법
- 사고 구술 이후 프로토콜 분석 : 학생이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중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하기 위해 시행
- '프로토콜' : 사건, 경험, 발화 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또는 일어난 직후에 기록한, 다듬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기록(녹음 또는 전사)

**[1-2학년] 2022 개정 각론**

**[1-2학년] 지도서 각론**

한글 놀이

한글 놀이

한글 놀이

[듣기·말하기/ 읽기 / 문법 성취기준]

듣기·말하기[2국01-03]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말차레를 지키며 대화한다.  
읽기[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① 단원 개관

① 한글 놀이마당의 개념과 설정 배경

- (1) 한글 놀이마당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 이해 및 익힘 시간의 증가로 설정된 특화 단원이다.
- (2) 한글 놀이마당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 발달적 특성과 학습 준비도 등을 고려해 놀이를 하며 한글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구성했다.
- (3) 한글 놀이마당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기간에 특별하게 계획된 한글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했다.
- (4) 한글 놀이마당은 초기 문자 지도 학습을 위해 1학년 1학기 초에 34차시를 기본으로 설정했고, 학생들의 상황, 교육과정 및 재구성성에 따라 시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 한글 놀이마당명: 한글 놀이

② 한글 놀이마당의 설정 목적과 목표

- (1) 한글 놀이마당은 '한글 놀이'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 (2) 글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과 여러 가지 놀이로 한글 자모음자를 익힘으로써 초기 문자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3) 학생들이 자모음자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소리 내어 읽으며 글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③ 한글 놀이마당 구성의 실제

- (1) 한글 놀이마당은 글자 놀이, 모음자 놀이, 자음자 놀이의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세 개의 소단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단원 내에서 이하기로 연결하여 구성했다.
- (2) 글자 놀이 소단원은 한글 해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놀이로 구현한 것으로, 선 긋기, 그림 구별하기, 기호 변별하기, 기호와 글자 모양 구별하기, 소리마디(음절) 인식하기, 동음절 연상을 활용한 말놀이 하기 등 다양한 문자 해득 학습 준비 활동으로 구성했다.

- (3) 모음자 놀이 소단원은 여러 가지 모음자 모양을 글자 속에서 찾고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글자들 속에 모음자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 뒤 모음자를 소리 내어 보고 쓰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 모음자 미로 빠져나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음자 만들기 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로 모음자를 익히며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4) 자음자 놀이 소단원은 모음자 놀이 소단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음자가 글자 속에 있음을 알게 한 뒤, 자음자를 쓰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때 기본 모음자와 결합해 소리 내기를 하고,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를 비교하며 자음자 학습 및 소리 내기 학습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리고 자음자 만들기, 동음절 연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자음자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5) 한글 놀이마당 실천 학습에서는 글자 없는 그림책을 활용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이야기에 나온 낱말을 중심으로 자모음자를 다시 확인하고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④ 한글 놀이마당 운영의 유의점

- (1)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임을 고려해 학습자의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 활동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여 적용한다.
- (3) 한글 놀이마당의 설정 취지를 고려해 34차시보다 줄여서 학습하는 것은 지양한다.

⑤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즐겁게 적응하며 모든 학습의 기초 소양인 한글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글자 놀이를 하고, 모음자와 자음자를 익히며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활동을 하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해 친구들과 어울려 글자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하며 한글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 ② **기본 모음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아보고 모음자를 활용한 놀이를 하며 한글을 익혀 나가도록 한다.
- ③ **기본 자음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자음자를 활용한 놀이를 하며 한글 자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자 습득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한글 모음자와 자음자를 익혀 한글 습득의 기초를 다지고 초등학교 학습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또 친구들과 글자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협동과 협업을 경험하고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⑥ 단원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 여러 가지 그림에서 글자인 것과 글자가 아닌 것을 구별해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낱말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모음자 놀이' 부분은 모음자의 이름을 듣고 알맞은 모음자를 찾아 표시하고, 낱말에 있는 모음자를 찾아 쓰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 ▶ '자음자 놀이' 부분은 자음자 이름 알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음자를 순서에 맞게 쓰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2) 평가에 따른지도 방안

평가결과	지도방안예시
선 긋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에 미숙해 정교하게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초기에는 심이 무른 연필(4B 또는 2B)이나 색연필을 활용해 선 긋기 연습을 반복하면서 차츰 정교한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모음자를 듣고 찾을 수는 있으나 쓰는 순서가 틀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음자를 듣고 찾을 수는 있으나 쓰는 순서에 맞게 모음자를 쓸 수 있도록 공책이나 연습장에 충분히 연습하게 한다. 글자 자체에 흥미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쓰기에 접근한다.</li> </ul>
자음자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자음자를 순서에 맞게 쓰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음자가 어떤 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같은 자음자가 들어가 있는 낱말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그 소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한글 놀이

① 한글 문해 준비도

읽기와 쓰기를 하기 전에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를 **한글 문해 준비도**라고 한다. 한글 문해 준비도에는 단어를 인식하고 낱자를 익히는 데 기초가 되는 시지각 식별과 책의 구성 요소 인식 등이 포함된다.

시지각 식별은 시각 변별, 눈과 손의 협응, 도형의 형태 변별, 공간 관계 등 시지각적 자극에 대해 구별되는 자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도형과 글자의 구분, 형태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지각 변별은 단순히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능력만이 아니라 두뇌 작용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자극의 해석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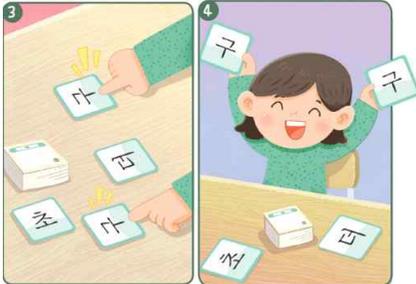
◆ 한글 문해 준비도 학습 요소

- 도형의 위치 및 형태 변별하기
- 글자 형태 변별하기
- 책의 앞뒷면 구분하기
- 책 제목 및 역할 알기
- 읽기 방향 인식하기

◆ 모양이 같은 글자 찾기 놀이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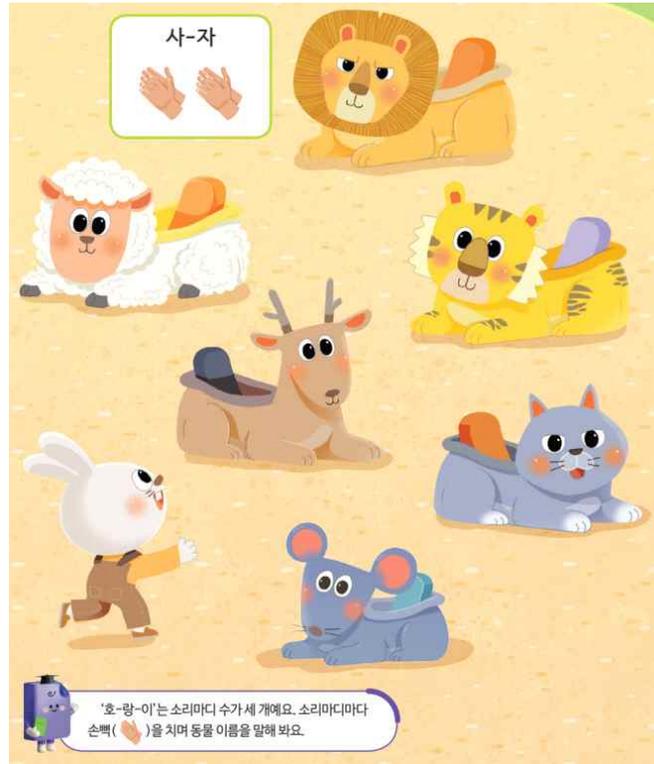


• 『국어』 21쪽은 놀이 활동으로 진행한다. 모양이 같은 글자를 찾으며 글자 변별과 인지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한글 놀이

② 소리마디 구분하기 - 이름의 소리마디 수가 같은 동물 찾기



지도의 유의점

- 이 차시는 첫째 마당의 기본 학습으로, 낱자(모음자, 자음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전에 학생들이 음운을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 **음운 인식**은 교사가 들려주는(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구별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차시에서는 글자 수가 같은 낱말 찾기,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찾기 등의 활동을 한다.
- 이 차시의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문자를 배우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므로 수업 중에 문자를 읽거나 쓰는 활동이 아니라 소리를 듣거나 말하며 음운을 변별하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한글 놀이

③ 음운 인식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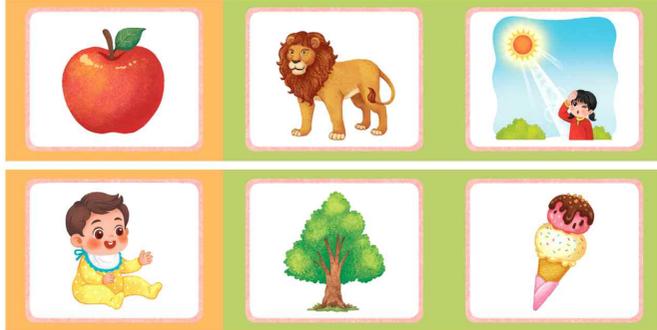
활동 이름	용례
다른 소리 찾기	(‘무릎’, ‘머리’, ‘가구’의 그림을 보여 주며) 다른 소리로 시작하는 말은 무엇일까? (가구)
음운 숫자 세기	‘물’은 소리가 몇 개일까? (음절 단위는 하나, 음소 단위는 셋)
소리 합치기	‘고’, ‘양’, ‘이’ 소리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 (고양이)
음운 분절	‘고양이’를 작은 소리로 나누면 어떤 소리가 들어 있을까? (고, 양, 이)
음운 탈락	‘비웃’에서 ‘웃’ 소리를 빼면 무슨 소리가 남을까? (비)

④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찾기



한글 놀이

① 시작하는 소리가 다른 낱말 그림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② 소리마디 수가 같은 낱말 이어 말하기

주사위에 나온 소리마디 수에 맞는 낱말을 떠올려 돌아가며 하나씩 말한다. (예 하나일 경우 '목 → 공 → 해 → 강 → 달 → 눈.....')

③ 앞 낱말의 끝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이어 말하기

'사자 → 자전거 → 거미 → 미끄럼틀'을 차례대로 따라 읽으며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뒷말의 처음 소리와 같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④ 모음자를 안다


한글 놀이

⑤ 모음의 구성

모음자들은 소리뿐 아니라 철학적인 원리도 바탕으로 삼아서 만들어졌다. 모음들도 기본적인 모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적인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을 만든 사람은 당시 우리말의 기본 모음을 셋으로 보고 이것을 '·', 'ㅡ', 'ㅣ'로 나타내었다.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상징하고,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상징하고, 'ㅣ'는 꽃꽂이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상징한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 하늘, 땅, 사람을 3재(三才)라고 하여 만물의 근본 요소로 생각하는데, 모음 글자를 만들 때 이 생각을 적용한 것이다.

· + ㅡ ⇨ ㅗ	ㅣ + · ⇨ ㅑ
ㅡ + · ⇨ ㅓ	ㅣ + ㅡ ⇨ ㅕ
ㅣ + ㅡ ⇨ ㅛ	ㅣ + ㅓ ⇨ ㅜ
ㅣ + ㅓ ⇨ ㅠ	ㅣ + ㅕ ⇨ ㅠ

⑥ 단모음과 이중 모음

국어에는 총 21개의 모음이 있다. 이러한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음이다. 반면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중 모음: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① 자음자를 안다

ㄱ, ㅋ, ㆁ	→	 ㄱ ㅋ ㆁ	
ㄴ, ㄷ, ㅌ, ㄸ	→	 ㄴ ㄷ ㅌ ㄸ	
자음자 ㄷ, ㅌ, ㄸ 알기	→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  <p>ㄷ <small>디글</small> [드] + ㅏ [아] → <b>다</b></p> </div> <div>  <p>ㅌ <small>티글</small> [트] + ㅣ [이] → <b>티</b></p> </div> <div>  <p>ㄸ <small>쌍디글</small> [드] + ㅏ [아] → <b>따</b></p> </div> </div>	
ㅁ, ㅂ, ㅍ, ㅃ	→	 ㅁ ㅂ ㅍ ㅃ	
ㅁ (비음)	ㅂ (비음)	ㅃ (쌍비음)	ㅍ (피음)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ㅁ'	'ㅁ'에서 바람을 더 내보내면 'ㅂ'	'ㅂ'를 두 배로 강하게 말하면 'ㅃ'	'ㅁ'에서 바람을 더 내보내면 'ㅍ'

한글 놀이

ㅅ, ㅆ, ㅈ, ㅊ, ㅅ, ㅆ	→	 ㅅ ㅆ ㅈ ㅊ ㅅ ㅆ
ㅇ, ㅎ	→	 ㅇ ㅎ

한글 놀이

② 자음자 읽기

• 자음자의 이름을 쓰고, 자음자의 소리에 주의하며 읽어 봅시다.

**보기**

ㄴ →  | 

ㄴ	→		으	→	
ㄷ	→		으	→	
ㅌ	→		으	→	
ㄷ	→		으	→	
ㅌ	→		으	→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음	시옷
						
이음	지읒	치읒	키읒	티을	피읒	히읒
						

[1-1-1] 글자를 만들어요.

[문법 / 쓰기 / 읽기 성취기준]

-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쓰기[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
- 읽기[2국02-01]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①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한글의 결합 법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받침이 없는 글자를 스스로 읽고 써 보며 한글 해독 능력을 기르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위치를 찾아보며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아본다. **기본 음절표를 제시해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바르게 읽고 쓰는 자세를 익히고, **다양한 모음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단원 1과 소단원 2는 학습자가 한글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신체 활동, 말판 놀이, 조작 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각각 초성과 중성으로 만나 글자**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또 한글이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로써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문자 언어를 이해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② 단원 지도 유의사항

- ①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로, 한글을 깨우치는 데 필요한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릿값을 알고, 그것을 조합하는 원리**를 익혀야 한다. 날자 카드, 날자 주사위, 말판 놀이,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 원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이외의 다양한 조작 활동과 놀이 활동으로 한글의 짜임을 익히고, 글자를 읽고 써 볼 수 있게 한다. 이때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쓰는 활동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학생이 **날말의 의미**까지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1학년 교실에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학생부터 **유창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섞여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④ 이 단원에서는 1학년 특성을 고려해 한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를 활용한 글자 만들기 놀이, 모음자 말판 놀이를 제시했으며, '실천 학습'에서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추가로 제시했다.

③ 단원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학생들이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지 지필 평가 방식을 활용해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날말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모음자의 위치가 서로 다른 날말을 사용해 평가한다.

▶ 학생들이 날말의 짜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수행 평가 방식을 활용해 평가한다. 자음음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의미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무의미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받침이 없는 단어를 정확하게 유창하게 읽는 것은 추후 받침이 있는 단어 읽기의 기초가 되므로, 성취하지 못한 학생은 개별 지도를 하며 글자와 소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에 따른지도 방안

평가 결과	지도 방안 예시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음절 날말을 먼저 지도하고, 다음절 날말을 지도한다.</li> <li>• 날자 자석을 활용해 자음자와 모음자를 붙여 보며 글자를 만들거나, 글자를 종이에 쓴 뒤 자음자와 모음자를 잘라보며 글자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자에 대응하는 소릿값과 모음자에 대응하는 소릿값을 지도한다.</li> <li>• 기본 음절표를 활용해 소리와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지도한다.</li> <li>• 자모음자에서 단어로 확장하며 소리와 글자를 대응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④ 날자지식

날자란 단어의 각 소리를 듣고 쓸 수 있는 음성 표기이다. 날자 지식이란 **자모음 날자의 모양을 변별하고, 자모음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날자 지식은 아동의 읽기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변인 가운데에서 강력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아동이 글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 글자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보다 글자의 소리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자모음자 이름이 날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음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날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날자 소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ㄱ'의 이름은 '기역'인데, 이 자음자의 소리를 [기역]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 날자 학습은 날자의 이름을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날자의 이름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즉, 날자 학습에서는 'ㄱ'을 보고 [기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기역' 글자를 읽으라고 하거나 '기역'을 쓰도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가지 날자의 이름을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 손으로 글씨 쓰기의 좋은 점

글씨 쓰기는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을 말한다. 소근육 운동 기술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 표기 처리 능력, 즉 글자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기억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글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야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씨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으로 연필을 움직이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글자의 시각적 형태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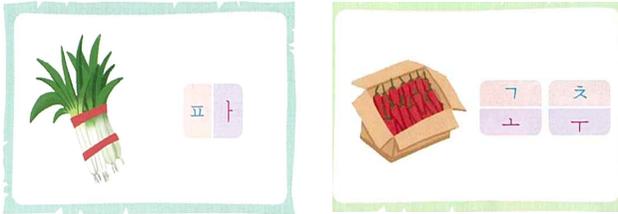
- 손으로 글씨를 쓰려면 전자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참용성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 연필을 잘 때 필요한 손힘을 기를 수 있다. 연필 쥐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밀가루나 지점토 반죽, 종이 오리기 등의 놀이를 통해 악력을 키울 수 있다.
- 손 글씨를 쓰면 바른 자형이나 필순 지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다

⑥ 글씨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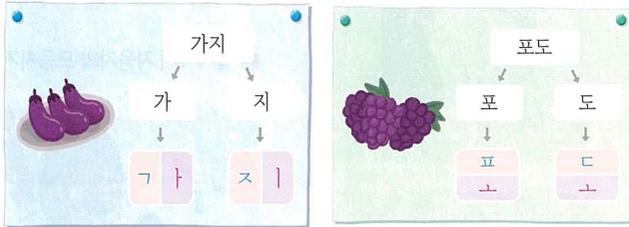
- 단원에서 배운 중요한 날말을 연습하는 활동이다.
- 학생들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위치**를 생각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글씨를 쓸 때에는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글씨를 쓸 때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앉아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①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②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고 글자의 짜임을 알아봅시다.



③ 파닉스와 기초 낱말 읽기

낱말 읽기는 쉽게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발현 문해력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낱말 읽기에서 기본은 낱말에 쓰인 자모 글자의 음가를 조합하는 것이며, 이것을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파닉스 지도이다.

파닉스는 어느 특정 읽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글자-소리 대응 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읽기를 지도하는 접근법을 총칭한다. 파닉스 지도는 아동이 자모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는 원리, 즉 자모 글자-소리 대응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파닉스로 읽기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낱말 읽기와 맞춤법에서 더 뛰어나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파닉스 지도는 글자-소리의 대응 관계를 지도하는 것이므로 음운 인식과 자모 글자 지식 지도가 파닉스 지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④ 기본 음절표

모음자										
자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가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	다	댜	더	뎠	도	도	두	듀	드	디
라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마	먜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	바	뵤	버	벼	보	뷰	부	뷰	브	비
사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 기본 음절표를 보면서 같은 자음자에 다른 모음자가 결합할 때, 같은 모음자에 다른 자음자가 결합할 때 서로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안내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⑤ 글자를 만드는 원리 알기



글자가 되려면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자음자는 글자에서 왼쪽이나 위쪽에 있습니다.

모음자는 글자에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습니다.

※ 자음자는 혼자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모음자는 혼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① 환경적 문자를 활용해 발생적 문식성을 신장하는 교실 수업

노이만과 그 동료들은 환경적 문자를 이용해 어린 아동의 발생적 문식성을 촉진하는 수업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아동에게 몇 가지의 낯익은 환경적 문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환경적 문자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낱자를 개별적으로 가르친 다음, 아동에게 해당 낱자를 쓰게 한다. 노이만과 그 동료들은 환경적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활자를 활용해 가르치는 방법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취학 전 교실 수업 전략으로서 환경적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낱자-소리 지식, 낱자 쓰기, 문자 읽기와 같은 측면에서 어린 아동의 성취를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비록 환경적 문자에 대한 지식이 자동적으로 일반적인 문자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이끌 수는 없지만, 수업 전략으로 환경적 문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일반적인 문자에 대한 지식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② 글씨 쓰기 학습의 의의

글씨 쓰기는 바른 글씨를 연습하고, 바르게 앉는 자세를 익히며, 연필을 잡는 방법을 숙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명확한 점과 획으로 단정한 글자를 조화 있게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글씨 쓰기 학습이 단지 문자와 낱말을 익히고 이해하는 방편 정도로 취급되거나, 미술과 서예에 밀려서 조형미를 추구하는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컴퓨터와 같은 도구가 널리 사용되면서 글씨 쓰기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글씨 쓰기는 여전히 모든 학습의 기초이고, 표현의 기본 과정이다. 따라서 글씨 쓰기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씨 쓰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글씨 쓰기에 인지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씨 쓰는 기능이 충분히 숙달되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씨 쓰기는 네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첫째는 올바른 **자세**
- 둘째는 글자(**문장 부호 포함**)의 종류를 바르게 쓰기
- 셋째는 용구(연필, 붓, 펜, 크레파스 등)의 바른 사용 방법
- 넷째는 글씨를 통한 마음가짐의 내면화가 그것이며, 글씨 쓰기 지도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1-1] 글자를 만들어요.

③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컨대 '구름', '나무', '놀다', '달리다'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 [花]'이라는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꽃이 [꼬치] / 꽃과 [꽃과] / 꽃나무 [꼴나무]**)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문법/ 듣기-말하기/ 쓰기 성취기준]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듣기-말하기[2국01-04]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른 자세로 발표한다  
쓰기[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

1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설정된 단원이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고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자음자-모음자-자음자)**을 파악하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는 방법을 배운다.
- 2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는 태도를 기른다. 기초 문식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한 해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생활 속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집중해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으며 바른 자세로 듣고 말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단원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바른 발표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의 말을 집중해 듣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단원 활동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구어와 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2 단원 지도 유의 사항

- 1 학생들에게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기, 받침이 있는 글자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 받침이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글자 아래쪽에 있는 자음자가 받침임을 알고, **글자에 받침이 들어가면 글자의 소리와 뜻도 달라진다는 것**을 지도한다.
- 2 글자 읽기-쓰기와 듣기-말하기의 기초적인 이해-표현 활동으로 의사소통 역량의 기초를 다져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 3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로 발표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듣기**를 지도하기 위해 발표를 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을 '준비 학습'에서 상기시키며 지도한다. 그리고 바른 발표 자세와 듣기 자세를 지도한다.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4 1단원의 받침이 없는 글자 익히기 학습에 이어, 이번 단원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익히며 기초 문해력을 점차 확장해 가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의사소통의 기본인 바른 말하기-듣기 자세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5 단원 평가 계획

(1) 평가 방법

-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이를 활용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쓸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한다.
- ▶ 받침이 있는 글자가 들어간 짧은 글을 활용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그리고 짧은 글과 관련한 낱말의 받침을 쓰고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 학생들이 **공식적인 말하기** 활동인 발표를 바른 자세로 하는지 평가할 때 교사 관찰, 학생 자기 평가를 활용해 평가한다.
- ▶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자세로 집중해 듣는지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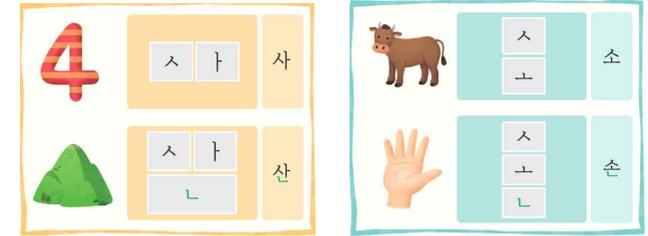
(2) 평가에 따른 지도 방안

평가 결과	지도 방안 예시
그림에 어울리는 받침을 찾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과 받침이 있는 글자를 비교하며 교사가 천천히 소리 내어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 준다.</li> <li>• 학생은 교사가 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소리 내어 따라 읽으며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연결 짓는다.</li> </ul>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해 주며 조금이라도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며 격려한다.</li> <li>• 무조건 큰 소리로 발표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1-1-2]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오

4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안다.

이 차시는 소단원 1의 기본 학습으로, 받침이 없는 글자에 받침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음자-모음자-자음자'의 순서로 조합해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5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쓰기 발달 단계

o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쓰기 발달 단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과제에서 제시된 표면적인 목적은 고려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거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화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알맞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조직하는 전략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형식 단락이나 내용 단락에 대한 인식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o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쓰기 발달 단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쓰기의 목적이나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전 학년에 비해 글감이나 화제를 비교적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